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유아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경험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조 현 진

부모-유아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경험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조 현 진

인 준 서

조현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긍정적인 경험과 어려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부모의 경험이 반영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가 부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유아교사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만 5세의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부모 12명이며, 연구 참여자 1인당 2회 이상씩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와 전사본을 토대로 내용을 분류하고 조직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자료 해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검증은 거치고,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의 지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교사의 의사소통과 부모가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선행 소통, 그리고 신중한 태도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의사소통을 부모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통은 부모가 유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부모의 협력을 유도하여 가정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과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은 유아에 대한 교사의 진심이 느껴지도록 하여 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왔다. 그리고,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사의 정기적인 소통은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적시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부모들은 교사가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소통 방법을 사용할 때 부모-교사 간 신뢰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와 부모의 관점과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와 갈등이 발생하며,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통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어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경우 교사의 일방적인 소통에 머무르고 되고, 부모가 소통을 포기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관계 형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의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로 인하여 소통이 단절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과 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양방향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자녀의 모습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으며, 자녀의 발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6
1) 가정연계의 중요성	6
2) 가정연계의 교육적 효과	8
3) 가정연계의 유형.....	10
2.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11
1) 의사소통의 정의 및 중요성.....	11
2)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의 방법	13
3)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의 내용	15
III. 연구 방법	17
1. 연구 참여자	17
2. 연구 절차	18
1) 예비연구	18
2) 본 연구.....	20

3. 자료 분석 21

IV. 연구 결과 23

1.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인
경험 23

1) 관찰 사례와 지도 방안을 통한 교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 23

2) 부모보다 앞선 교사의 선행(先行) 소통 27

3)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교사의 소통 30

4)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 33

5)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 36

6)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소통 38

2.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 43

1)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사의 노력 부재 44

2) 상황에 맞지 않는 교사의 소통 방법 46

3) 교사와 부모의 관점과 견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갈등 48

4)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 부족 51

5) 존중되지 못하는 부모의 의견 53

6) 부모의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 55

3.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 59

1)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 59

2) 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양방향적인 소통 62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녀의 모습 공개 64

4)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68

V. 논의 및 결론	71
1. 논의	71
2. 결론 및 제언	82

참고 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18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정이다. 가정은 유아의 최초의 환경으로서 초기경험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는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행동양식에 모델링이 되는 존재로 신체, 정서, 인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심성경, 조순옥, 이정숙 이춘자, 이선경 이효숙, 2004).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유아에 대한 정확한 발달지식과 일관된 양육태도 등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자녀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기에 접하게 되는 또 다른 환경은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에게 부모와 분리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는 환경이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또래 집단 속에서 적응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의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대되고 핵가족화로 가족 구조가 변화되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유아교육기관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유아에게 중요한 환경으로 가정만큼이나 유아교육기관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대표되는 부모와 유아교사는 각자 속해있는 환경과 그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부모와 유아교사의 교육적 가치나 유아에 대한 기대수준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박희숙, 2003; 박순이, 심

성경, 박주희, 2005;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유아의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부모의 인식 수준을 비교한 박희숙(2003)의 연구에서 부모들이 교사에 비해 유아의 놀이에 대해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 부모와 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1998)은 유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수준을 연구하여 유아발달에 대해서 어머니의 기대가 교사의 기대에 비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기대수준을 연구한 박순이, 심성경, 박주희(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보다 어머니가 유아발달에 대해 더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199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두 연구의 결과가 모두 기대수준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유아에 대한 교육이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교육으로 유아에게 혼란을 준다. 유아기에 안정감과 일관성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조희수,2003). 따라서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의 원활한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적인 연계와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협력을 중시된다.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협력은 부모의 긍정적 역할과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때 이루어지며(김희진, 2006),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의사소통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의논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김희진,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와 유아교사가 학부모 개인면담과 함께 전화, 대면,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소통매체를 이용하여 유아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배지은, 2013; 송민영 2015; 조형숙, 2000; 정윤귀 2006).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전이하는 과정에서 혼란없이 부모와 유아교사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일관된 교육 안에서 한쪽 환경의 부족함을 다른 환경이 보완하여 유아의 발달을 균형있게 촉진할 수 있다(Galindo & Sheldon, 2012).

이러한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은 유아에게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이점이 있다. 부모는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고(홍지명, 2015), 유아와의 생활 속에서 축적된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Decker & Decker, 2001). 반대로 유아교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가 관찰하지 못한 유아의 이면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모에게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정보로 개별유아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Gestwicki, 2000). 따라서 부모와 유아교사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나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고선아, 2008; 노상경, 2012; 서재경, 2014; 손환희, 2009; 안지혜, 2012; 이현정, 2014; 정계숙, 2001; 홍정연, 2011)들을 통하여 실제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안지혜(2012)는 유아교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부모와 평등하지 않는 관계에서의 대화로 인해 교사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대화에 대해 부담감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모로 인한 단절된 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소통이 예측할 수 없거나 선을 넘는 부모의 지나친 요구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상처를 겪는다고 하였다. 노상경(2012)는 교사 스스로 양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능감의 한계를 겪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취업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연구한 홍정연(2011)은 부모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의 실체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느끼는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이진애, 2012) 또한 의사소통의 내용은 자녀의 하루의 생활과 또래와의 관계 등 유아에 대한 사항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단순하고 평이하며, 가족과 관련 된 사항은 유아에 대한 사항에 비해 비중이 적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대화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최미숙, 박영미, 200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 부모와 유아교사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중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부모와 유아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양방적인 소통이 필요하다(이지훈, 2013).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 부모와 유아교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및 현황(하유나, 2014; 이지훈 2013), 의사소통의 어려움(고선아, 2008; 배윌미, 조유진, 2014; 손환희, 2009; 안지혜, 2012; 염지숙, 홍춘희, 2006) 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사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들이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 조사 위주의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인식은 알 수가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심층적인 생각은 이해할 수 없다. 부모와 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질적 연구(고선아, 2008; 안지혜, 2012)도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교사의 관점을 조망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통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의 입장도 심층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부모의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노상경, 2012)도 있지만 이는 의사소통의 저해요인이라는 연구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을 분석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소통의 어려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2.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3. 유아교사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1) 가정연계의 중요성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이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유아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교육과 양육을 받는지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아를 중심으로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이미자, 문혁준, 2008). 생태학적 접근에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는 다른 환경체계보다 유아 개인과 근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가정 내의 부모와 유아교육기관 내의 교사는 유아의 환경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환경요소이며 이 두 환경이 맺는 관계도 유아의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다(Bronfenbrenner, 1979).

유아의 발달의 주요 환경인 가정은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환경으로, 유아기에는 다른 시기보다도 특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 내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유아의 성격 및 행동양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어 가정은 필수적인 환경요소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유아의 환경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점차 환경의 폭이 넓혀지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가정 외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유아가 또래와의 공동생활 속에서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가정과 함께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개인 삶의 가치 변화 등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최초 이용 연령이 37.3개월로(보건복지부, 2012) 이용시기가 하향화 되고 있으며, 부모의 기관 이용 이유가 사회성발달, 전인적 발달 다음으로 대리보호라고 보고한 보건복지부(2012)의 전국보육 실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이 주 역할이던 양육문제까지도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유아에 대한 교육과 양육이 유아교육기관으로 대부분 이양되고 있음에 따라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은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은 생활환경이 다르고 양육과 교육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에게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며 제공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가정은 유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며(Bloom, 1964), 유아교육기관은 공동생활과 조직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사회성을 기르고 신체, 언어, 정서, 인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두 환경의 차이는 유아에게 연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혼란을 주지만(Kontos,1984),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일관된 양육과 보육은 지속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어서 모든 발달영역에서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에게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으로 유아의 교육이 많이 이양된 현 상황에서도 유아교육기관이 채워줄 수 없는 가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한쪽 환경만의 자극이 아니라 유아가 접하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두 환경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일관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udolph와 Cohen은 부모와 교사의 협력은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다른 관점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유아의 전인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이경화, 1992, 재인용). 부모의

이해나 참여 없이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듯이(김영옥, 1987),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 환경요소이자 유아에 대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교육적 연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정연계의 교육적 효과

가정연계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강문희, 신현옥, 정옥환, 정정옥, 2002), 유아의 발달에 대하여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준다.

Hilderbrand(1981)은 가정과 유아교육의 연계는 교사로 하여금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여 가정에서의 유아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와 교사가 유아를 향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같은 교육 방향으로 유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가정 연계를 통해 교사가 부모에게 제공한 유아 교육 정보는 부모가 가정에서도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Dauber와 Epstein(1993)은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정연계는 유아의 학습 성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으며, 가정연계활동의 경험을 가진 유아들은 활동에 대한 흥미와 부모와 교사에 대한 존중감이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McKnight(1989)는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활동 참여가 유아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을 더 촉진시킨다고 하였다(손환희, 2009, 재인용). Sutherland(1991)도 역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로 유아의 언어와 인지적 발달이 향상되고,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 보다 나은 방향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연계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에게도 나타나는데,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

한 참여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Hoover-Dempsey,& Burow, 1995) 이처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는 유아의 발달에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교사와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는 가정연계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윤형윤, 1999; 안은주, 2001; 김희정, 2011; 정미애, 2011; 방은경, 201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연계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반면에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의 이유로는 가정연계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사들에게 어렵고 힘든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Henderson, 1988), 낮은 자아효능감으로 인해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태도(Christenson, 2003)등이 지적되고 있다(박희숙, 2009, 재인용). 가정연계 적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박신경, 2007). 서영숙(1989)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다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환경의 차이, 즉,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 차이, 가치관의 차이 아동관리상의 차이에 대해 서로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간 연계로 부모와 교사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전달해야 두 환경의 연계 효과가 증진된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는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교육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교사와 부모의 각자의 역할의 일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정과 유아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의 적극적인 가정연계활동 참여가 중요하다.

3) 가정연계의 유형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하여 가정과 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부모참여, 부모교육, 가정과의 협력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희정, 2011). 가정연계의 유형은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 구분의 기준이 다르다.

Greenwood & Hickman(1991)은 가정연계의 유형을 교육기관의 교육 방향과 교육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모임의 참여, 유아의 교육을 위한 정보와 유아 양육을 위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교육의 참여, 교사와의 상담과 유아를 위한 교육 자료의 제작을 보조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교육기관의 행사의 참여,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참여로 구분하였다. 또한 Gordon(1970)은 가정연계를 위한 부모 참여의 유형을 자녀의 교육목적 달성과 적응을 위한 교육기관의 부모 교육에 참여, 가정에서의 자녀 학습을 가세하기 위한 가정학습자로서의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을 조력하기 위한 자원 봉사로서의 참여, 유아의 교육활동에 보조자나 전문가로서 참여의 참여, 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부모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하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안진(1993)은 가정연계를 부모회, 가정방문, 전화대화, 부모면담, 수업참관, 보조교사, 유아교육기관 운영에의 참여, 워크숍 및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으며 모용희(2015)는 유아교육기관 행사 참여, 면담, 가정방문, 가정통신문과 전화 등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 봉사, 부모교육, 역할극, 비디오 감상회, 독서 좌담회 등의 부모 참여, 그림책 가정 대여 등의 자료공유, 유아교육기관 운영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형태로 구분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정연계의 유형은 의사소통 활동과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활동, 자료공유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활동, 기관의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 활동 등의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에게 유형별로 다양한 가정연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2.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정의 및 중요성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은 연계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공유) 또는 communicare(공동체, 공통성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0). 장필남(2010)은 의사소통을 언어나 비언어적인 기호나 동작 등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 간에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차배근(1989)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해 서로의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Sereno와 Bodaken(1975)은 의사소통을 동시적인 상호간의 교환이라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이루는 주체들이 끊임없이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상호복합적인 작용이라고 하였다(이화나, 2008, 재인용). Knezevich(1975)는 알고 있는 정보나 그에 따른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등을 서로 교환하여 정보에 대한 사실과 그에 따른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avis(1967)는 상호간의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손지연, 2007, 재인용).

또한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0)은 의사소통을 차배근(1976)의 구조적 관점, 기능적 관점, 의도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였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 기호를 사용하는 행동,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극을 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란 사람과 사람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의 공통된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이 미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유아교사 간에도 이루어진다.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교육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하며,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은 유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신념, 행위, 가치를 나누는 매개체의 역할이며(이주경, 1996), 대화나 기호를 통하여 형식적으로나 때론 비형식적으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전달받으며 공통 의미를 찾고 협의하여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구수진, 2001)이다.

Bauch(1997)은 유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부모와 교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을 안내하고 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재연, 김경희(1992)는 부모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을 통한 가정과 기관의 협력 관계는 부모가 기관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Leeper(1984)는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은 교사가 유아와 유아의 가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적절한 학습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Gelfer(1991)는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사이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화를 통해 부모를 더욱 격려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은 유아에게 요구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며 부모와 교사가 교육적 동반자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사와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교사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이에 부모가 교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스스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유아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한다. 이처럼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은 유아, 부모, 교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효율적인 교육을 이루는 데 있어 높은 가치를 지녔다.

2)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의 방법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위한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의 방법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형식적인 의사소통과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인 의사소통은 부모모임, 협의회, 통신문 등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사항과 같은 특별한 주제를 나누기 위한 의사소통이다.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은 대면이나 쪽지,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며, 하루 중에 일어났던 특별한 상황의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이다(김민정, 2010).

Chazvini와 Readdick(1994)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을 일방적 의

사소통과 쌍방향 의사소통, 삼차원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일방적 의사소통은 유아교육기관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쇄물들이 속하며 안내책자,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쪽지 및 편지 등이 포함된다(김희진, 2006). 쌍방향 의사소통은 부모와 유아교사가 직접 상호작용하며 개인적이거나 세부적인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소통으로 전화, 부모의 참관 및 참여수업, 부모와 교사 간 상담, 부모모임, 면대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통신기기 발달로 부모와 교사가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졌으며 이에 메신저를 통한 채팅이나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김희진, 2006). 삼차원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교사,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사회사업가와 함께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김민정, 2010). 그러나 아버지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현황을 살펴본 김선진(2015)의 연구와 취업모와 유아교사 간 의사소통 현황을 살펴본 정윤귀(2006)의 연구, 부모참여 활동의 일원으로 의사소통의 현황을 살펴본 조미영(2008)의 연구가 모두 일방적 의사소통과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현황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삼차원적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로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는 알림장, 가정통신문, 전화, 대면, 이메일, 홈페이지 등이 있다(김선진, 2015).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모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전화(위수정, 2000; 배인자, 위수경, 2004)나 직접 대면(김희동 1994; 이진애, 2012)을 통한 소통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일방적 의사소통보다 쌍방향 의사소통을 더 선호하고 있다(정윤귀, 2006).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홈페이지가 맞벌이 부모들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문경미, 2002).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방적 의사소통 방법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두어 모든 부모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신화식, 김명희, 2010) 쌍방향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소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매체가 도입되고 있다. E-mail이나 SNS를 활용한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E-mail과 SMS를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시간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연구(김경영, 2007)도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메신저와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진아, 2015). 하유나(2014)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메신저가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화나 대화보다 부담이 적고, 간단한 내용사항을 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처럼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기존에 시행되었던 의사소통 수단과 함께 오늘날 보급 된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의사소통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3)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의 내용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의 내용은 유아 개인의 문제에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의사결정문제 등의 공통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Winkelstein(1981)은 의사소통을 내용에 따라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사교적 의사소통,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정보적 의사소통, 영유아의 귀가시간 결정 등의 의사결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사교적 의

사소통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일상, 유아, 성인, 가족, 건강에 관한 의사소통 내용으로 나누어서 그 빈도를 살펴본 Minish(1986)의 연구 결과, 잡담, 일상, 인사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유아의 친구관계 유아와 교사와의 관계, 하루 일과 등 주로 유아에 관한 내용이 부모와 가족과 관련 된 내용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와 가족과 관련 된 사항은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최미숙, 박영미, 2004). 이주경(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가 모두 유아의 하루 생활과 유아의 발달에 관한 의사소통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김희동(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대화가 주로 아동의 행동특성과 발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하며 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아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취업 부모 역시도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아의 양육 및 교육과 유아의 발달상의 문제, 문제행동 등 유아와 관련된 사항을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다(홍정연, 2011).

이와 같이 국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와 관련된 사항에서 가장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수정(2001)의 연구에서는 정보 전달보다는 사교적인 의사소통이 자주 이루어진다고도 하였으며, 이진애(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교사의 관계나 양육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의 내용은 교사와 부모의 안부나 인사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유아의 하루일과나 발달문제 등의 유아와 관련 된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면에 가정과 가족과 관련 된 내용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최소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상담 시에 주 참여자가 어머니라는 김진(2014)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거나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기관으로 보내지기 시작하는 연령이 만 2세부터이기에(홍성희, 조은래, 2013) 본 연구에서는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자의 지인을 먼저 선정한 후에 선정된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추천 받는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안내 하였으며, 12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참여의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직업	자녀 연령 (성별)	유아교육기관 형태/재원기간
박선경	34	대졸	전업주부	만 4세(남) /만 2세(남)	구립어린이집/ 2년
전미혜	30	대졸	자영업	만 3세(여)	사립유치원/ 8개월
이나은	30	대졸	교사	만 4세(남)	사립유치원/ 9개월
김은혜	30	대졸	전업주부	만 2세(여)	민간어린이집/ 9개월
이하정	34	대졸	교사	만 3세(남)	사립유치원/ 12개월
이기연	35	대학원졸	목사	만 3세(남)	민간어린이집/ 11개월
김진희	33	대졸	전업주부	만 2세(남)	구립어린이집/ 2년
김민경	36	대학원졸	전업주부	만 5세(여)	공립유치원/ 3년
한영주	34	대졸	전업주부	만 5세(남)	공립유치원/ 2년
오은미	35	대학원졸	회사원	만 4세(여)	구립어린이집/ 2년
김지영	36	대졸	전업주부	만 4세(남)	사립유치원/1년 9개월
주은희	34	대학원졸	회사원	만 5세(여)	공립유치원/2년 8개월

2.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질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1인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녀로 인해 개인적 시간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된 질문목록을 사용하되 면담내용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한 질문을 추가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담은 준비된 질문과 면담 내용에 따라 추가된 질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답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질문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부모가 면담과정에서 그때그때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편안하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바꾸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질문이 누락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질문목록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 참여자가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어투로 질문하고 연구 참여자가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예비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가 질문의 내용을 편안하게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의 분위기와

연구자의 어투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경험과 생각을 수집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첫 면담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레포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또한 연구자의 소개 및 연구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모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들어보고자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은 예비연구 후에 수정·보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부모마다 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였으며, 1차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어떠한지, 어머니들이 자녀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떤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으로 느끼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였다. 1차 면담 시 어머니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들이 면담 과정 중에 구체적인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따라서 2차 면담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어머니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어려움을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유아교사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하고 싶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이후 더 구체적인 사례나 의논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하여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주로 원하는 장소는 집 또는 집 앞 카페였으며, 시간대는 오전에서 오후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지인이 연구 참여자의 자녀를 돌봐주었다.

면담 시간은 1회에 50~6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가능한 중간에 끊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어머니들이 녹음과정을 의식하지 않도록 녹음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자료를 연구 참여자별과 날짜별로 전사하여 전사본을 만들고 전사본의 내용을 정독하며 여러 번 읽으면서 1차적으로 긍정적인 경험, 저해요인과 어려움, 요구하는 점, 기타로 분류하였다. 2차 과정에서는 1차 분류된 각각의 사례들을 세심하게 정독하여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목록화하고 수차례 재분석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3차 과정에서는 범주화한 자료를 핵심 내용을 토대로 다시 개념화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와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추출하였다. 초기 분석 과정에서는 긍정적 경험 또는 어려움에 대해 각각 방법적인 경험과 감정적인 경험으로 범주화를 시도하였으나 두 범주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범주들을 다시 조정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4차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하며 재분

석하고 개념을 재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어 두었다가 다음 면담 시 묻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서 분석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외에 2명의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전문가와 자료 해석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연구 해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의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구를 부모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은 관찰 사례와 지도 방안을 통한 교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부모보다 앞선 교사의 선행(先行) 소통,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교사의 소통,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소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찰 사례와 지도 방안을 통한 교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부모들은 유아교사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유아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제시하고 관찰내용을 바탕으로 소통할 때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와의 대화로 부모는 교사가 나의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교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경험은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부모들이 언급한 내용이었

다.

여기 선생님은 사건을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해요. ‘얼굴을 잡아서 힘껏 뒤로 밀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갈등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모가 그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아이가 상당한 충격이 있었겠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하정. 2014. 12. 9.)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하루는 아이가 몸이 좀 좋지 않았는데 제가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거든요. 하루 종일 걱정됐는데 아이 데리러 갈 때 선생님이 오늘 하루 동안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놀이 할 때 아이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색칠도 대충하고 친구들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 “힘들면 누워서 조금 쉴까?” 하고 먼저 권했고, 아이가 원해서 누워서 쉬게 했고, 점심 먹을 때 쫄 일어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밥은 조금만 주었고, 그 후에 38.2도까지 열이 올라서 어머님께 전화 드린 것 처럼 해열제 복용하고, 점심을 먹은 후라 앉아서 쉬었는데 30분 후 쫄 36.8도 정도로 열이 내려서...(중략)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 주셨어요. 제가 보지 못했어도 아이의 하루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집에서 저녁은 먹을 수 있을지, 병원을 가봐야 할 정도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선생님이 많이 신경 쓰셨구나 싶기도 해서 고마웠어요. 정말.

(김민경. 2015. 4. 17.)

우리 아이한테 다른 친구가 가방을 주고 갔는데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는 6살이 받고서 가만히 있다가 그걸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아, 그런 부분이요?” 하면서 그 동안 관찰한 우리 아이 모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블록놀이를 할 때 지켜봤는데 친구들과 한 공간에 있지만 그 놀이는 하기 싫은 거 같은데 말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지민아. oo이가 같이 놀자는데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기 싫으면 ‘나 이거 하고 있어. 다음에 같이 놀자’ 하고 말하면 돼” 하고 가르쳐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내가 말한 부분과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이런 성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때 알았어요.

(이나은. 2014. 11. 17.)

위와 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부모에게 제시한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 상황의 내용에는 유아의 발달 상태나 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유아의 건강상태나 식생활 등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의 관찰 상황도 포함되었다. 뿐 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현재 소통 중인 내용을 뒷받침해 줄 관찰 사례들도 교사가 제시하는 내용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교사로부터 유아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는 했지만 그 보다는 구체적인 소통을 더 옹호하였다.

“아니예요. 잘해요” 하고 다 잘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만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부모가 볼 때 문제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잘 한다고만 하면 믿음이 안가서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서 해야 하나 싫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주면 ‘그랬구나. 집에서는 다르게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가 가고 확실히 근거가 있으니까 바로 인정하게 되고 신뢰가 가요. 그러면 대화 나누는 중간에 내가 몰랐던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나은. 2014. 11. 17)

칭찬을 들었을 때 좋죠. 그런데 잘한다가 주관적이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잘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소극적이지만 할 건 해서 잘 하는 건지 썩썩하게 잘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 해주면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엄마가 알고 바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김진희. 2014. 11. 8.)

부모들은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잘한다’라는 말 보다는

관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소통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 빠른 인정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소통은 부모가 유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일반적인 소통에 비해 관찰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소통은 유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부모가 적시에 유아를 돕게 만들고, 이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에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유아를 원활하게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경우에도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중략) 이 선생님은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고 알려주셨는지 꼭 이야기 해 주세요. (중략)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 이 되니 사건을 무난하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하정. 2014. 12. 9.)

선생님은 확실히 다르구나 싶어요. 이 시기 특징에 대한 것을 전문가답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아이밖에 모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져서 걱정이 앞서요. 우리 아이가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못 듣고 안 보게 되니까 걱정 되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차이점을 말해주셔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 안하게 되더라고요.

(한영주. 2014. 10. 25.)

부모에게 제시하는 교사의 지도 방안은 자녀의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에게 안심과 위안을 주었으며 부모가 유아의 문제를 심각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부정적 평가를 제한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가 유아교육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부모가 알지 못한 지식을 알게 해 주어 가정에서 유아를 교육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부모가 모르는 유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안은 교사에 대해 더욱 신뢰를 쌓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연계하여 교육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부모보다 앞 선 교사의 선행(先行) 소통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모가 유아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기 전에 교사가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면 마음이 비교적 안정된다고 하였다. 이 처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발생한 여러 상황에 대해 교사가 선행 소통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부모는 안정 된 마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선생님들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친 부분은 즉각 반응을 해 주세요. 그걸 해주는 것부터가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많아도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오은미. 2014. 11. 2.)

아이가 많이 다쳐서 왔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 아이가 다친 것을 보기 전에 전화주면 좋은데 내렸는데 명이 들어있고 그 상황에 아무런 연락을 못 받으면 정말 화가 나서 흥분을 하게 되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아팠던 거잖아요.

(이은정. 2014. 11. 11)

여기 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화를 많이 해 주세요.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진짜 개구쟁이라서 많이 다치거든요. 친구들과하고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혼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만큼 상처가 나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와요. 저는 이제 전화 안하셔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방침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원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정민이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해 주세요. (중략) 오히려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주시니까 제가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또 선생님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선생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늘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어쩌다 간혹 사소한 것은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 괜찮은 마음도 들고요.

(이기연, 2014. 11. 22.)

부모들은 교사의 선행 소통이 단순히 ‘연락을 취했다’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를 넘어 교사가 유아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부모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유아가 아프거나 다치는 등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상황에서 교사의 선행 소통이 부모를 안심 할 수 있게 만들고 나아가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교사가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부모는 비교적 차분하게 교사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는 부모가 교사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모보다 앞 선 교사의 선행 소통으로 부모가 교사에게 신뢰를 가지게 되면 부모는 간혹 사소한 부분에서 교사가 먼저 전화를 주지 않더라도 바쁜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편하게 넘길 수 있게 된다고도 하였다.

하루는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정리를 안 해서 혼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저희 아이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일로 혼나지 않았을 것을 알 것 같기에.. 더 혼내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전화 오셔서 혼난 이유와 어떻게 지도 하셨는지 말씀하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가 되더

라고요. 저는 훈육을 못하게 하는 엄마는 아닌데 아이 입에서 먼저 들었다면 ‘혼났다’라는 말 때문에 과장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기연. 2014. 11. 22.)

한편, 안전 상황 외에 교사가 유아를 지도하고 훈육하는 생활지도 면에 대해서도 교사의 선행 소통이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교사가 먼저 연락을 취하면 부모는 유아를 통해서 얻은 정보보다 교사로 부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 유아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아를 향한 교사의 지도 및 훈육 상황을 부모가 확대하여 해석하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거나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집에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아주 사소한 게 궁금하다거나.. 아이와 관련된 거니까 이야기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따로 전화하면 극성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고 선생님이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한영주. 2015. 5. 12.)

우리 선생님은 길게 통화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안부를 묻거나 교사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제가 둘째 임신했는데 아이가 처음에 동생 생기는 게 싫은지 집에선 어리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따로 연락드려서 하기는 좀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이걸 학기 초에 상담할 때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전화를 따로 드리긴 하지만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담 말고 따로 전화 드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상담을 자제해 주셔야 모든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 드릴 수 있다고. 이건 정말 저희 선생님만 하는 특별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이야기만 하고 특별히 없으면 바로 제가 먼저 끊어요. 그런데 그런 짧은 통화도 자주하니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엄마들도 그 부분을 만족해하고 있어서 별일 없으면 바로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민경. 2014. 10. 20.)

부모들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부모가 교사에게 먼저 소통을 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부모가 교사에게 먼저 소통을 요구하면 부모들은 혹여나 교사가 이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를 극성스럽다고 여길까봐 염려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유아에게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이나 부모와 교사의 안부에 대한 소소한 소통들도 교사가 부모에게 먼저 소통을 시도해 주면 부모는 조금 더 편안한 감정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편안한 감정의 소통은 부모와 교사 사이의 친밀감도 형성하게 만들어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소통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교사의 소통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시간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게 된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그 상황을 가볍지 않게 생각해 주기를 원했다. 교사가 유아의 상황을 신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와 소통하면 부모는 문제 상황에 대해 감정이 덜 앞서게 되어 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중략) 약을 보내줘야요. 제가 급할 때는 아침약도 못 먹여서 보내요. 그럼 아침 약 따로 점심 약 따로. 시간 딱딱 맞춰서 투약의뢰서 써서 보내는데, 투약의뢰서에도 보내시고 수첩에도 ‘어머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먹이고 조금 늦어서 이 시간에는 다르게 먹였습니다.’ 하고 써서 보내주세요. 약이 두 개가 와서 헛갈리실 경우는 항상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다 물어보셔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귀찮지 않고 너무 고마워요.

(김진희. 2014. 11. 8.)

‘사소하다’ ‘중요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관점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부모들은 갈등 상황의 심각성 여부를 교사가 자의로 판단하지 않고 유아의 상황에 신중을 기하여 부모와 상세하게 소통할 때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유아의 건강, 안전 등 유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아에게 발생한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며 소통하는 교사의 태도에 부모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교사가 상세하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 사례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다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유아의 다친 상태를 다소 심각하게 표현하여서 유아를 염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준 교사로 인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 아이가 다쳤고 상처가 많이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랐는데 보니까 크지 않더라고요. (중략) 근데 만약에 반대로 ‘크게 다 치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 하고 집에 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다쳤다면, 화는 내지 않았겠지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걱정을 덜게 하려고 상황을 작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조금은 과장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상태를 보지 못한 엄마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름의 좋은 효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애기 아빠가 다치는 것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다쳤는데 많이 다쳤대.’ 라고 했더니 애기 아빠가 전화로는 엄청 흥분했었는데 상황을 보고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연. 2014. 12. 8.)

부모들은 교사가 가볍게 표현한 유아의 상태에 비해 실제로는 상태가 심각할 경우,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가볍게 표현한 교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교사가 유아를 염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며 다친 유아의 상태를 다소 심각하게 표현하면 부모는 교사가 자녀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상황을 신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는 유아가 다친 상황이지만 흥분을 갈아 앓히게 되고 오히려 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교사의 소통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애가 하루는 팔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중략) 부모 입장에서선 그래도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불안하고 너무 놀랐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직 감정통제가 안 되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해서 아이가 놀래지 않도록 친구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선생님 말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음날 다시 전화하셔서 잘 전달되었다고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며 이후 상황까지 책임지시려는 게 신뢰가 가고 프로다워 보여서 많은 조언을 얻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전화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김은혜. 2014. 11. 11.)

부모들은 유아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소통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경우, 교사에게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가지게 되고 교사가 더욱 전문가답게 느껴져 다양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소통을 하는 교사의 태도가 유아의 건강, 안전 등의 유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부모에게 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부모가 교사를 더 전문가로 느끼게 하고 교사의 소통에 더 경청하게 만들며, 부모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는데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중에 ‘공감하기’는 내 마음을 상대방이 나와 같이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 형성이 이루어지게 하고 자기 공개를 촉진시킨다(정상섭, 2008). 부모들 역시 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사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소통할 경우에 의사소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갈등상황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 교사가 부모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자신의 자녀 입장에서 소통해 줄 때 부모의 흥분된 감정을 내려놓고 교사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의 ‘부모 공감하기’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는 부모가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돕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신속한 인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애들이랑 있다 보면 사소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죄송할 일이 아닌데 제 감정을 생각하시면서 배려하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오은미, 2014. 11. 2)

좋은 얘기도 해주시지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중략) 아이가 나쁜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내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깐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도와주시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여러 사소한 상황에서 잘 울고 그러는 걸 저도 아는데 선생님은 ‘마음이 어려서.. 속상할 테니까 다독여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고맙죠.

(한영주, 2014. 10. 25)

저번에 저희 애가 친구를 밀어서 친구 이마에 크게 흠이 생겼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어머님 놀라셨죠? 소정이라도 많이 속상했었나 봐요.” 하고 우리 아이 입장을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 한 거 아는데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인거 금방 받아들이고 집에서도 고집 부릴 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어요.

(김진희. 2014. 11. 8.)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반면, 부모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사가 상황 설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부모들은 거부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교사가 부모와의 소통에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우선 시 하지 않고 부모 또는 자녀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었을 경우에 교사의 소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날도 하원하기 전에 먼저 전화가 오셨는데 처음에 아이한테 상처가 크게 났다고 해서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못 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먼저 전화주시고 ‘속상하시죠? 죄송해요’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말없이 상황설명에만 먼저 초점을 맞추면 화가 났겠죠? ‘난 내 아이가 먼저인데 선생님은 상황정리에 급급하구나.’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나은. 2014. 12. 29.)

우리 아이가 친구가 안 놀아준다고 속상해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거든요. (중략) 그런데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아이가 놀이할 때 이끌고 주도하고 싶어 하다 보니 그렇다며 조심스럽게 상황설명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안 놀아 준다니까 우리 아이의 잘못도 있겠거니 하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바로 상황 설명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니까 왠지 모르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상황들이 내 아이 입장보다는 다른 아이들 입장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더 이야기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중략) 안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 할 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미혜. 2014. 11. 18.)

부모들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무엇보다 소통의 흐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모의 자녀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자신의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가 이루어 질 때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내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이 연사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제가 애가 셋이라 아침에 일찍 준비 못해서 제시간에 등원을 못시키고.. 집에서 동원한 연령대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부모가 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나이끼리 있는 것이 아니니까 레벨 맞추기가 힘들고 변수가 많으니까.. 막내가 자주면 고맙지만 안 그러면 애들이랑 뭔가를 하려다가 그냥 접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집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며 내 입장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면 흘러들게 돼요. 엄마의 상황을 생각해서 특별히 시간 내어야 할 수 있는 것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조언해 주면 좋더라고요.

(박선경. 2014. 10. 11.)

제가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일을 안 하시는 엄마들 보다는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지만 못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런 걸 공감해 주시려고 하세요. ‘어머님 바쁘시죠. 상황이 잘 안되셔서 답답하시겠어요.’ 하시면서 집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오랜 시간 대화를 못 나눠주니까 짧은 대화라도 아이와 깊게 대화가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질문을 어떻게 어떻게 해보시라고 조언해주고,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전화 주셔서 아이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작년 선생님은 제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 상황 고려해서 조언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필요한 대화인거 같아요.

(오은미. 2014. 11. 2.)

부모의 상황에서 공감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부모와 유아에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교사의 일방적인 소통이 되어 의사소통으로서의 본래 목적도 훼손시킨다. 부모들 역시 부모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교사의 조언은 부모에게 크게 와 닿지 않아 형식적인 소통이 되고, 이에 교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입장을 공감하고 부모의 양육 환경을 배려한 교사의 소통은 의사소통을 경청으로 이끌고 무엇보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사의 소통은 부모가 교사의 소통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므로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5)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

유아는 연령의 특성상 성인의 관찰과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녀의 문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부모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록 유아의 문제 상황이나 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교사가 부모의 의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모는 교사가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유아에 대한 교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하였다.

선생님과 아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선생님이 그 날의 간단한 상황을 쪽지로 써주거나 전화로 아이의 모습을 이야기 해 준다거나 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면 '선생님이 내 아이에 대해 나와 같은 뜻을 품고 있구나, 내 아

이를 정말 걱정하는 구나' 하고 마음이 가게 되죠.

(박선경. 2014. 12. 19.)

우리애가 10월말쯤인가 갑자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극단적으로 친구들이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이에 대해 선생님과 대화를 좀 나눴죠. 동생 생긴 이후부터 무조건 자기 쪽으로 하려는 우리 아이 문제도 물론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선생님이 매일 관찰을 해서 상황들은 전화나 연락이 안 되면 문자로 알려주셨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아이에 대해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진짜 노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느껴져요. 변화는 없지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니까 “아~ 이게 진짜 아이를 위한 상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경. 2014. 10. 20.)

때로 부모의 의견은 교사의 입장과 상충한다. 따라서 부모가 제시한 의견을 교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부모들 역시 교사와 부모의 입장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교사가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타당한 이유와 대체된 다른 방법으로 부모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인정하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녀를 돕고자 노력하는 교사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애가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해요. 그 조금 이기적인 거 알면서도 시장놀이 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건 알겠지만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대신 교실에서 놀이로 연습해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매자 역할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이가 집에 와서 오늘 장난감 가게 주인을 했대며 “장난감 사세요. 이건 어떠세요? 500원입니다.”하면서 놀이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조금 이기적인 의견을 냈다는 건 알아

요. 제 의견을 들어주신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노력해 주시니까 감사했어요.

(이나은. 2014. 11. 17.)

이처럼 부모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통의 결과가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제시한 부모의 의견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교사의 태도로 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소통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나누는 의사소통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소통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부모와 분리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또래와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와 처음 분리되어 기관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의 모습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며, 때로는 부모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염려와 신뢰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교사가 유아의 기관 생활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 주면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는 자체만으로 안심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찰한 생활 모습을 통해 자녀와 소통의 주제를 만들 수 있고, 또래 속에서의 자녀의 성향을 부모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에게 유아의 생활 모습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수첩을 통해 유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을 홈페이지에 진짜 많이 올려주세요. 일주일에 3번씩?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놀이 활동하는 건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닌 이상 늘 사진으로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께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부모는 그 사진 한 장으로도 걱정이 사라지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사진 보면서 뭐했는지 대화도 나누고요.

(이나은. 2014. 11. 17.)

우리 아이에 대해 궁금하긴 해도 선생님도 바쁘데 매일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보여서 알게 되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많은 친구들과 몰려서 놀지는 않더라고요. 혼자 있거나 1~2명의 친구하고만 놀이하는 모습만 있더라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또래사이에서는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죠. 나중에 선생님께 확인 해 보니까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김지영. 2014. 10. 17.)

홈페이지를 이용한 소통은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유아의 상황을 전달 받을 수는 있으나 부모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모들은 애초에 홈페이지를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제공받고 부모의 간단한 의견만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부모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의 생활 모습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이는 이후 교사와의 개별 면담 시에 유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도 하였다.

홈페이지도 부모랑 하는 소통 아닌가요? 물론 확실히 자세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 그런데 선생님한테 전달 받는 것만큼이나 궁금한 게 많이 해소돼요. 매주 오는 계획안을 봐도 사실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지 또 궁금증이 생겨요. 글 쓰는 걸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그럼 나중에 면담 할 때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해요. 만약 이런 사진도 보지 않았다면 부모가 어떤 소통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은미. 2014. 11. 2.)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홈페이지로 유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해서 잦은 횟수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나 유아의 모습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면 교사의 다망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2회 정도라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굳이 매일 올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바쁘잖아요. 물론 매일 보면 좋을 순 있겠지만 이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 동안 활동했던 걸 모아서 올려주는데 아이가 말했던 것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이한나. 2014. 12. 28.)

또한, 부모들은 사진으로 유아의 생활모습을 제공받는 방법 외에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 또는 학부모 참관 방법이 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학부모 참여 또는 참관으로 교사와 의사소통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관찰되어진 모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우리 유치원은 학부모 참관을 해요. 모든 부모들이 한꺼번에 다 가는 이벤트성 있는 행사가 아니라 한번 갈 때 부모들이 몇 명씩만 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놀이하는 생활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사실 집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내 아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고 나면 선생님하고 상담 때 같은 모습을 보고 이야기 나누니까 아이에 대해 대화도 잘 통하게 되고요.

(오은미. 2014. 11. 2.)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하세요. (중략)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토요일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이랑 가서 그곳에 있는 숲을 볼 수 있고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아이랑 놀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한분만 계시고 선생님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생활공간에서 가서 활동한 것도 보고 또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건지, 뭐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기관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주니까 기관 환경에 대해 신뢰도 가고 아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선생님이랑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정확히 내 아이를 향한 소통 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은혜. 2014. 11. 11.)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홈페이지, 참관, 기관 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에게 유아의 생활 모습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에게 유아의 생활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이해와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앵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뭔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요즘 워낙에 인터넷이나 TV로 기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선생님이 말해도 미심쩍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을 오픈해 주면 왜 그렇게 교육하는지도 이해되고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 모습에도 신뢰가 생기죠. 아이를 맡기는데 신뢰 가고 이해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박선경. 2014. 10. 11.)

한편, 부모들은 교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의사소통 역시 부모와 교사간의 소통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였다. 부모와 교사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부모는 미리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정한 기간으로 자녀의 상황과 기관의 소식을 알 수 있어 즉각적인 가정연계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알 수 있어 안심된다고 하였다.

면담이 1년에 2번이라고 정해지는데 20분에서 30분이예요. 그 시간 동안 아이의 한 학기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하기에 너무 너무 벅차요. 전화는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부모랑 선생님의 교류

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 주는 날이 있으면 아이의 변화를 부모도 알 수 있으니 안심되고요.

(이나은. 2014. 11. 17.)

우리 유치원은 평소에 문제가 있으면 자주 전화를 주시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전화상담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이에 대해 궁금했던 거나 행사에 대해 이해 안되는 게 있으면 적어놓고 상담을 해요. 상담하고 나면 궁금한 것 들이 많이 해결 되어서 마음이 편해요.

(한영주. 2014. 10. 25.)

긴 시간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아이의 변화나 요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집에서 빠르게 반응 보여주면서 도와 줄 수 있으니 좋고...

(박선경. 2014. 10. 11.)

또한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부모들은 미리 기약된 다음의 소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부모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략) 무엇보다 소통하는데 다급함이 안 생겨요. 이번 상담 끝나도 다음 상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한꺼번에 궁금한 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한영주. 2014. 10. 25.)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이 간간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필요에 따라 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들은 교사에게 먼저 소통을 시도할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선소통으로 교사와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한다고 하였다.

전화를 주시기는 하지만 딱히 특별한 게 없을 때 궁금할 때 전화를 달라고 하니깐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혹시 너무 자주 전화해서 선생님이 불편해 하는 건 아닌지.. 전화하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오히려 전화 약속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부담 없는 소통이 돼요.

(전미혜. 2014. 11. 18.)

선생님이 “편한 시간에 전화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자주 전화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하원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원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전에 다닌 기관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상담시간이 있었거든요. 부모가 먼저 필요시에 전화하는 것 보다 훨씬 부담이 없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선생님이랑 친밀감도 쌓여요.

(박선경. 2014. 12. 19.)

이처럼 정기적으로 유아의 모습을 공개하고 상담하는 소통은 부모가 교사와 더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아의 문제를 부모가 적절한 시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더 효과적인 가정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사의 노력 부재, 상황에 맞지 않는 교사의 소통 방법, 교사와 부모의 관점과 견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갈등,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 부족, 존중되지 못하는 부모의 의견, 부모의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사의 노력 부재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몇몇의 부모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교사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들은 부모가 소통을 요구하기 전까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먼저 소통을 하지 않는 교사를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유치원은 1년에 2번하는 학부모면담 말고는 특별히 정해진 상담은 없어요. 선생님들 자율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먼저 전화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러신가 보다 하긴 하지만 아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전혀 오가지 않으니깐 답답하기도 하고 매번 내가 먼저 물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박선경. 2014. 10. 11.)

선생님이 전화하는 날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중략). 옆 반 선생님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사의 성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왜 전화를 잘 안하냐고 하기엔 딱 정해진 날이 없으니깐... 그래서 뭐랄까.. 소통에 대한 책임이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은 부모 책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선생님이 먼저 전화하는 거 귀찮아 할까봐 눈치도 보여서 망설여 질 때도 있거든요.

(김지영. 2014. 11. 18.)

부모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방침이 교사의 의사소통 노력을 더욱 부재하게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교사의 성향 자체가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 부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사와 부모가 교사에게 여러 차례 소통을 시

도한 후에야 반응을 보이는 교사도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교사라고 생각하였다.

(중략) 먹는 게 어린이집 가서 이렇게 안 잡히면 선생님이 한번쯤은 전화를 해서 “밥 먹는 게 이런데 집에서 어떤가요?”하고 한번쯤 물어볼만 한데, 제가 벌써 수첩으로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중략) 그랬더니 그제서야 “좀 힘들어 해요. 집에서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략) 선생님한테 가끔 수첩으로 ‘그냥 먹는 습관만 길러지게 적당히 주세요.’라고 글로 써서 보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글로써 이야기 하면 사람 감정이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이후 특별한 말이나 따로 연락 없어요. 궁금한데 계속 물어 볼 수도 없고.

(박선경. 2014. 10. 11.)

애는 대소변을 가릴 줄 알지만 잘 닦을 줄은 모르는데 (중략) 또 밖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 근처는 노인들도 있어서 혹시 화장실 갈 때 노인 분들도 계시는 건 아닌지 계신다면 혼자 가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겨서 전화를 걸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물어본 것에 “그렇지는 않아요.” “따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잘 갔다 와요”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더 이상 제가 물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질문한 것 외의 말은 하지 않으니깐. 나는 화장실에 간 이후가 궁금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 주도록 말을 유도를 한 거였는데 선생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더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물어서 뭐하나 싶고.

(전미혜. 2014. 11. 18.)

이처럼 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소통을 시도하여도 교사가 제때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단답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부모들은 교사와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결국 의사소통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의 두 번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은 교사와의 소통으로 유아의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의사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단답형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부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이며, 유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서로 나누어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교사의 소통 방법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 면담, 가정통신문, 수첩, 쪽지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의 의사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오해와 불만이 야기된다. 부모들은 특히 교사가 구체적 상황이 요구되는 문제를 문자나 쪽지 등의 글로 소통함으로써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하루는 아이가 턱에 상처가 나서 왔는데 굵힌 게 아니라 살이 파였는데 (중략) 그래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답답한 마음에 수첩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수첩에 대체교사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속상하셨겠다고 적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수첩이 아니라 전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선경. 2014. 10. 11.)

준비물이 필요하거나 전달사항이 아닌 이상 쪽지를 쓰는 거는 좀 별루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아이의 발달적인 부분이나 오늘 있었던 일, 다친 일 같은 것에 대해 상황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글은 그런 걸 표현할 수 없어서 소통을 한다 해도 궁금증이 풀리거나 해소되지가 않아요.

(이나은. 2014. 11. 17.)

유아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이나 유아의 발달상태와 같은 유아와 직접적으

로 관련 된 사항에 대한 교사의 문자 소통은 부모에게 유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였으며, 유아에 대한 교사의 진심을 부모가 의심하거나 왜곡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부모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에 대한 정보와 교사의 의사를 나누고자 함도 있지만 이와 함께 부모의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러나 글로써 표현하는 소통은 이러한 감정을 나눌 수 없다는 단점으로 교사의 의사소통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그냥 아이의 이런 부분은 마음에 걸린다, 속상하다 하는 감정을 나누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의 이런 마음을 알면 아이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글로 쓰는 거는 이런 부분을 나눌 수가 없고 간단명료해야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이하정. 2014. 12. 9.)

이렇게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쪽지 등의 글로 소통을 하는 교사에 대해 부모들은 ‘교사가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거나 ‘바쁘다보니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단 이야기를 해야 해서가 아닐까요?

(이나은. 2014. 11. 17.)

전화로 이야기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문자로 간단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김지영. 2014. 10. 17.)

한편, 간단한 전달사항을 위해서는 쪽지나 수첩을 활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단한 전달사항이라고 해서 글의 형식을 고려하지

않은 생략 문장은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소통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었다.

하루는 수첩에 ‘만들기 준비물 쇼핑백 담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왔는데 이 말이 준비물을 쇼핑백에 담아달라는 건지, 준비물로 쇼핑백을 담아달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략) 수첩은 이렇게 글로 쓰기 때문에 혼동이 있어요. 정확히 써 주셔야 다시 연락 안 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혜. 2014. 12. 16.)

이와 같이 상황에 맞지 않는 소통 방법은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어 부모와 교사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켜 부모와 교사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유아를 위한 협력을 이루고자 함에 어려움을 주었다.

3) 교사와 부모의 관점과 견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갈등

부모와 유아교사는 각자 속해있는 환경과 역할이 다르므로 유아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유아의 상황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에 기준이 각기 다른 부모와 교사의 관점 차이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사진이 안 올라와요. (중략) 만약 홈페이지에 ‘전시회 준비로 어머님들을 깜짝 놀라게 해 드리기 위해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전시회 준비도 하고 이런 저런 활동도 합니다.’ 하고 올려놓았다면 상황을 이해해서 안심이 되었을텐데 갑자기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죠. 나중에 전시회 하는 걸 알고 사진을 안 올린 이유를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유치원에서의 상황을 다 아니까 그런 부분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시겠지만 엄마들은 안 그래요. 미리 정보를 주지 않으면 걱정되고 궁금함 때문에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나은. 2014. 11. 17.)

유치원에 생일잔치를 할 때 통신문으로는 전달을 받기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봐도 선생님은 그냥 “아직은 준비 중이니까 생일 전에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참석을 해야 되면 근무시간을 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 없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중략) 나는 내 나름대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준비할게 있었는데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바빠서 인 것 보다는 나랑 통화 할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전미혜. 2014. 11. 18.)

부모들은 유아교사가 발달 특성이나 학습능력, 생활모습과 같은 유아의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부분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여러 상황들을 처음 접하는 부모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부모들은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와 교사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사의 느린 반응과 소통의 부재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교사가 소통해 주기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과 양육을 병행하여 시간의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모에게는 유아를 위해 부모가 일정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부모들은 교사와의 소통 부재로 자신이 자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게 되면 자녀가 또래들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을 염려 하고 있었다.

선생님한테는 매번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 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애가 혹시 내가 잘 못 챙겨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오은미, 2014. 11. 2.)

또한 부모들은 유아의 기본생활면에 대해서도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유아의 주 양육자인 부모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생활해야 하는 기관에서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교사 입장에서 매우 일상적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판단되어 부모가 따로 소통하기 전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배변활동 같은 사소한 거도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소한 것들은 선생님이나 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정통신문 같은 곳에 없더라고요. (중략) 그런 부분은 물어보기도 약간 민망해요. 그리고 요새 엄마들은 내 아이가 못하는 것을 뒤에서 얘기해요. (중략) 또 유치원의 모습은 잘 모르니까.. 20명의 애들을 어떻게 화장실 지도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나은, 2014. 11. 17.)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의 생활을 처음 하는 경우나 자녀가 기관의 경험은 있으나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의 부모가 이 같은 기본생활면에서의 소통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양육이 주 역할인 부모와 교육이 주 역할인 교사는 각자의 견해에 따른 양육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견해가 때론 맞지 않고 충돌할 때 부모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아이가 편식이 심했는데 선생님이 밥을 다 먹게 시키셨어요. 제가 볼 때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억지로 안 먹여줬으면 좋

졌다고 했는데 저랑은 다르게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보다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시더라고요.

(이기연. 2014. 11. 22.)

집에서의 기준과 기관에서의 기준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기관에서는 허용되는 것들도 많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교육적인 얘기면 아무래도 전문가인 선생님의 의견을 많이 따르겠지만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은 집에서 교육하는 거고 기준이 다 다르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 달라 강하게 요구하면 선생님이 양보하는 거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의견이 확고하시면 부모가 포기하는 거죠.

(김지영. 2014. 11. 30.)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들은 유아의 문제 상황에 대해 자녀의 힘든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부모와는 다르게 교사는 교육자의 역할에서 유아의 발달적인 부분을 우선 시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의 생활 습관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모와 교사의 다른 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이 아닌 한쪽이 양보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초래하였다. 부모들은 부모와 교사의 다른 견해로 발생하는 갈등을 소통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소통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4)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 부족

본 연구에 참여한 소수의 부모들 중에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로 인하여 소통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부모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유아의 행동과 이유를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말하거나 일반적인 내용의 소통만 이어나가는 경우에 교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좀 뭉뚱거리서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진희, 2014. 11. 8.)

큰 아이 선생님은 면담에 가면 아이들과 활동하는 게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연령에 따라 우리 애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지 말씀해주셔서 들으면 정말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작은 아이 선생님은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말하면 잘한다고는 하세요. 그런데 딱히 뭐랑 비교해서 잘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볼 땐 아닌데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해요. 또 전에는 현장학습을 여기로 가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원장님이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선생님이 왜 그 활동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간다는 게 참... 아이를 보내도 되는 건지 믿음이 안가고 답답해요.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망설여져요 선생님이지만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은희, 2014. 12. 27.)

내가 생각하고 봐왔던 5살 때의 그림보다 더 못 그려요. 근데 잘한다는 거죠. (중략) 그냥 같이 지내는 또래 모습에 비해 잘한다고 느끼는 거겠죠. 애가 조각이라던가 언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책도 줄줄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 개인으로 봤을 때 잘하던 애가 6살 2학기 되서는 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어내지 못하세요. 전문성이 의심되고 신뢰가 안가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도 속 시원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요.

(박선경, 2014. 10. 11.)

부모들은 교사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소통 할 경우 교사에게 전문가다움을 가장 많이 느껴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부모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근거 없는 일반적인 소통만 하는 교사에게는 나의 자녀를 교육하는 담당자로서 믿음이 가지 않고 교사로서의 존경심을 가지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에게는 느껴지는 유아의 문제점을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사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겨난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부모가 교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유아를 유아교육 지식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교사로 인해 부모들이 유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었다.

5) 존중되지 못하는 부모의 의견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개인 문제에 대한 소통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유아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 교육철학 등 모든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포함 되는 부분은 소수를 위해 교사가 단독적인 재량으로 소통할 수는 없다. 이에 부모는 교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외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나 원감, 교사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부모가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도 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기관의 교사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기관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한다거나 어려우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데 별 말이 없어요. 반응을 안보이니까.. 처음엔 의견 수렴이 안 되나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은희. 2014. 12. 27.)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 내라고, 통신문 밑에 써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중략) 통신문이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한 장에 너무 내용이 많다보니 내가 놓치는 것도 많고,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중략) 건의사항을 넣었는데 이 의견을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적으라고 한 건지. 그러니까 나중엔 아예 안 적어 내게 되요.

(박선경. 2014. 10. 11.)

또한 위 사례와 반대로 반응을 나타내어도 의견 수용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 어린이집은 애들 생일 때 매번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 여러모로 부담스럽더라고요. 때 마침 원장선생님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 드렸더니 이걸 계속 해왔던 거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생일인 아이가 하는 답례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답례품이 의무는 아닌데 엄마들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엄마들도 부담스러운데 분위기상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또 얘기도 했는데도 특별하게 조절을 해주지 않아요. 건의를 해도 하지 말라고 얘기만 하지 전체 분위기가 바뀌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늉만 내고 막상 바뀌는 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제 의견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결국 형식적으로만 소통한 거 같아요.

(김은혜. 2014. 11. 11.)

위와 같이 부모들은 기관의 교사들이 기관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의견에 미반응을 보이고 반응을 보여도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부모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부모들의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에 의사소통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통을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불편을 느낄 경우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개인적인 소통과는 다르게 기관 운영 방식과 같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소통할 때는 부모가 낸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운영방식이라는데 어찌겠어요. 내 아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서 계속 내 의견만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냥 얘기하고 안 통하면 포기하는 거죠.

(김지영, 2014. 11. 30.)

교사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원감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에 나름의 교육적인 이유를 대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좋게 돌려서 얘기 하시니까 좋게 들리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해결이 된 건 없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교육철학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그냥 포기하고 감수하고 있고 어떤 엄마는 그냥 그만 두고 다른데 갔어요.

(한영주, 2014. 10. 25.)

이처럼 부모들은 기관운영에 대해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여도 그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반응이 없거나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통은 부모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으로 이끌고 있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주었다.

6) 부모의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

부모는 유아교사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엄마들은 좋은 이야기 이 만큼 듣고 나쁜 이야기 하나 들어도 나쁜 이야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박선경, 2014. 10. 11.)

이에 따라 부모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에 교사로부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녀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과잉 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경우에 교사가 이 같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특별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잉해석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교사가 이야기 한 자녀의 부정적인 부분을 혼자 상상을 하며 자녀의 문제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시면 엄마인 나도 아이의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선생님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돌려서 얘기해서 이 정도인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직설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는 안 들려요.

(김민경. 2014. 11. 26.)

학습적인 것을 못하면 내가 얹혀놓고 가르치기라도 할 텐데 친구관계에 대한 문제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의 문제면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략)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말로 전해들은 거니까 나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고 또 상상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휴.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내 아이 문제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요.

(김지영. 2014. 10. 17.)

내가 직접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한 만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되면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왕따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 일이면 ‘그 정도는 아닐거야. 괜찮을거야.’하고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 문제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큰 상황도 생각해 보게 돼요. (중략) 선생님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진 안심이 안 돼요. 선생님이 안 좋은 얘기 하시면 그 때부터는 그 부분만 보게 돼요.

(이나은. 2014. 12. 22.)

부모들은 부모가 과잉 해석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잉해석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과잉해석은 부모가 교사의 소통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부모와 교사간의 소통이 유아의 문제 상황 중심으로 편중되게 하여 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과잉해석은 부모가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 보다 교사와의 소통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선생님과 전화상담하는 중에는 “아 그래요?” 하고 듣기는 해요. 그런데 끊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선생님이 말한 아이의 문제만 기억이 나요. 그 부분만 걱정되고 나도 모르게 과장되게 생각이 되요.

(이나은. 2014. 11. 17.)

그럴 때요? 일단 그냥 선생님 말을 듣기는 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계속 생각나고 제가 집에서 따로 애한테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 또 선생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으면 잊지 않고 물어보죠.

(이하정. 2014. 12. 30.)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스스로 교사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하였고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타인에게 듣는 자녀의 부정적인 평가는 객관적으로 수긍되기 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이에 소통을 회피하게 된다는 의증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이러한 부모의 회피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부모들은 스스로가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솔직히 아이한테 안 좋은 얘기 하면 선생님이 그런 뜻 아닌 거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상해요. 남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피하거나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모르고 싶은 건 아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모여서 그런거겠죠? 내가 부모지만 이걸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김은혜. 2014. 12. 16.)

아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기보다는 아이가 왜 그러는지 제 입장에서 봐왔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도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괜히 기분이 상해요. 내 아이를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피하게 돼요. 그런데 전화하고 있을 땐 속상해서 내가 대화를 피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전화 끊고 진정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친구들과는 어떤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못 들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주은희.2014. 1. 24.)

이에 대하여 부모들은 교사의 소통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특히 아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도 부모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게.. 선생님이 너무 임팩트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 부모가 더 기분 상해서 소통하고 싶지 않아져요.

(이나은. 2014. 11. 17.)

근데 선생님이... 뭐랄까.. 본인 말이 맞다는 것처럼 너무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 상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부모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지는데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단호하게 하는 건 좀...

(주은희.2014. 1. 24.)

부모들은 유아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교사가 너무 단호한 표현을 쓰거

나 강한 인식을 주는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할 경우 더욱 감정이 상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교사의 소통 기술이 중요함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녀의 문제 상황을 과잉해석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하여 의견조율 과정으로 진전되기 이전에 소통 자체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3.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는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양방향적인 소통,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녀의 모습 공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는 교사가 유아교육의 이론과 지식에 근거한 신뢰성이 갖추어진 소통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는 유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외에 부모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교육 지식을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요즘 엄마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가베며 몬테소리며 교구들도 많이 알고 인터넷에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같다니까요.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는 정도의 상담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또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실제 필요한 교육방법에 대해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김지영. 2014. 11. 30.)

선생님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써가면서 말하면 더 신뢰가 가는 느낌이에요.

(김민경. 2014. 11. 26.)

선생님이 전문가지만 정말 전문가다웠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사실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더 전문가다운 다양한 지식에서 도움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유치원이구나. 이곳을 선택하기 잘했다' 싶을 것 같아요.

(이나은. 2014. 12. 29.)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을 통해 부모는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소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 교사로부터 조력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전문가다운 교사의 모습을 통해 현재 자녀가 재원 중인 유아교육기관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 기관을 선택한 것이 타월했다는 부모의 만족감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교사가 반복적으로 전문적인 교사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부모는 교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기와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가 즐겁게 다니는지 아닌지 정도는 담임 눈에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는지가 궁금해요. 교사의 기본적인 것이. 그런 기본기가 계속 갖춰질 수 있도록 교사들도 계속 교육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선경. 2014. 12. 19.)

요즘 TV에서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아이를 보는 직업은 진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전문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나은. 2014. 11. 11.)

우리 반 선생님이 말씀을 참 잘하셔요. 유아 관련 지식들도 많이 아셔서 이유도 뚜렷하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상담 끝나고 원장선생님께 도움 많이 되었다고 얘기했더니 원장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다니시면서 공부 많이 하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하고 교육 받으면서 전문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고 확실히 부모를 신뢰하게 해요. 이게 학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뭐랄까.. 제대로 소통이 되어서 속 시원하고 안심되는 느낌이랄까?

(이하정. 2014. 12. 9.)

위의 사례를 통해 부모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유아교육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를 언급하였지만, 최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학대가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인성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음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교육의 계획 여부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부모도 있었다.

유치원 처음 선택할 때 홈페이지 같은 거 잘 보거든요. 요즘 홈페이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홈페이지에 부모교육이나 행사 계획 같은 거 적어놓는데 교사교육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는 곳도 많아요. 처음엔 그냥 있으니까 봤는데 그런 거 하면 선생님들이 더 노력하고 전문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이한테 선생님은 중요하잖아요.

(김민경. 2014. 11. 26.)

위의 사례들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부모들은 교사가 유아교육에 대

한 전문적인 식견과 교사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을 갖춰 부모에게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명목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통이 이루어주기를 요구하였다.

2) 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양방향적인 소통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두 환경에서 유아를 일관되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가 교사에게 정보를 전달받는 일방적인 소통을 경험한 부모들도 많았다. 이에 부모들은 부모와 유아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상호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소통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부모가 이야기를 했을 때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맞춰서 보내라는 것 같아서 의사소통한다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의견이 수렴될 수 없더라고 반응을 보이는 건 의견을 제시한 부모에 대한 예의 인 것 같아요. 수렴될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며 의견을 내는 것은 아이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박선경. 2014. 12. 19.)

보통 선생님이 거의 말을 하잖아요. 아이에 대해서든 유치원 행사에 대해서든. 물론 유치원에서의 모습이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부모가 들어야 되는 부분지만 집에서 나한테는 아이가 또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또 선생님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집에서는 상황들 때문에 도울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끝내기엔 소통을 해도 답답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만의 얘기를 듣는 소통이 아니라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합의점을 찾는 그런 소통이 되었으면 해요.

(전미혜. 2014. 11. 18.)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하시지만 그 외에는 엄마와 보내

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선생님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이유로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양쪽 모습을 다 알아야 아이를 정확히 알죠.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들어야겠죠. 서로. 엄마들을 아이를 돌보는 입장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해요. 요즘 엄마들도 기본적인 교육 지식들 많이 알거든요.

(이하정. 2014. 12. 29.)

유아교육기관 측에서 생각이 각기 다른 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부모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것을 떠나 함께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소통이 되기를 원하였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유아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라고 하였으며, 이에 교사들은 함께 유아를 교육하는 동반자임을 잊지 말고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위해 양방향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거나 부모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소그룹 학부모 모임을 갖는 것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부모와 교사의 소통을 양방향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제가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모임도 갖기도 하고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은 묻기도 했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거의 유치원에서 정해서 통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부모의 의견도 들어야 하잖아요.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들을 대표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성화 되면 좋겠어요.

(김지영. 2014. 10. 17.)

사실 부모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기에는 선생님도 어려우 실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반의 삼분의 일이나 반 정도의 부모들과 선생님이 모임을 가져서 선생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부모가 원하는 교

육방향 같은 것도 들어보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들끼리만 얘기 나누면 생각이 잘 맞기는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가 될 뿐이지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이하정. 2015. 1. 21.)

부모들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양쪽 입장을 들어보며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부모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을 양방향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통은 유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유아의 발달을 더 올바르게 이끌 수 있기에 부모들은 교사에게 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양방향적인 소통을 요구하였다.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녀의 모습 공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가 생활하는 모습은 부모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의 생활 모습을 다양한 경로로 공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지도를 받는지를 직접 보았을 때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부모가 자녀의 생활모습을 봄으로써 자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으로 거론되었던 이야기이며, 많은 긍정적 효과를 보았던 만큼 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 모습을 공개 해 주기를 더욱 강조하며 요구하였다.

선생님이 하는 상호작용이나 지도방법도 궁금해요. 부모로써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미혜. 2014. 12. 20.)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 모습을 공개하는 것만큼 신뢰

가 가는 건 없죠. 신뢰도 같 뿐더러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의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게 꾸준히 공개해 주고 다양한 방법들도 찾아봐 주셨으면 해요.

(김민경. 2014. 11. 17.)

아이가 유치원에서 뭐했다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도 아이가 하는 말에 질문도 하고 싶고 공감도 해주고 싶은데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아이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해요. 유치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부모가 볼 수 있으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집에서도 이야기 나눠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모습이 오픈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랑도 아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김진희. 2014. 11. 8.)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의 모습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참관과 공개수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사진을 그 다음으로 요구하였다.

학부모 참여수업 같은 거는 행사처럼 평소와는 다른 형식인 이벤트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참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평소에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선생님이랑 정말 필요한 얘기를 나누죠.

(이나은. 2014. 11. 17.)

저는 저희 선생님이 조금 무뚝뚝해서 나한테도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평소에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하고 어떻게 배우는지도 알고 싶어서 공개수업 같은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학습적인 걸 따로 가르치지는 않는데 옆 유치원은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이시기는 학교처럼 배우는 게 아닌 거 알면서도 걱정은 되거든요. 놀이를 통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부모가 직접 한번만이라도 보면 교사와 상담할 때도 믿음이 가고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전미혜. 2014. 11. 18.)

부모가 직접 보는 게 사실 오해도 없고 다른 상상 하지 않고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우면 홈페이지에서 사진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박선경. 2014. 10. 11.)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모습을 공개해 주는 방법으로 참관 또는 공개 수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유아의 생활모습과 더불어 교사가 지도하는 모습까지 관찰 할 수 있고, 또한 유아의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닌 전반적인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참관이나 공개수업을 통하여 유아의 모습을 공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진을 자주 제공하는 방법으로라도 유아의 생활모습을 공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의 생활 모습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 또는 공개수업이나 사진을 통한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내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루 활용해 유아의 모습을 공개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참관은 참관이고 사진은 사진이죠. 참관은 아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사진은 그렇지 못하는 일상을 보는 거니까요. 사실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나은. 2014. 11. 17.)

둘 다 어떤 것을 더 선호한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둘 다 의미가 다르다 보니 사실 두 방법 모두 활용해서 아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박선경. 2014. 10. 11.)

한편, 부모들은 참관과 공개수업을 통해 자녀의 생활모습을 공개하는 빈도수에 대해서는 많은 횟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참관의 경우는 한 학기에

두 번 정도를 가장 많이 원했으며 공개수업의 경우에는 교사의 부담감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번 정도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반면 홈페이지 사진을 통해 자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경우는 부모들이 한 주에 2~3번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언급하였지만 זאת 횟수를 가장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들이 직접 와서 보고 있으면 사실 선생님들도 부담되겠죠. 알긴 알아요. 그래도 한번 만이라도 공개수업을 하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만이라도 괜찮아요.

(이기연. 2014. 12. 8.)

그래도 상담처럼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은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변화가 있는지 부모 입장에선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사실 더 궁금하긴 하지만 부모가 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입장도 생각하면 참관은 두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박선경.2014. 10. 11.)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건 못해도 홈페이지 사진은 꼭 봐요. 매일매일 틈날 때 마다 봐요. 저는 맞벌이니까 사실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 주다보니 사진을 매일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생각보다 바빠서 매일 못 보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주에 두 번? 세 번? 정도만 올라와도 괜찮아요.

(김지영. 2014. 10. 17.)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유아의 생활 모습은 부모에게 기관에 대한 안도감을 주고, 부모가 자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부모와 교사간에 이루어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에 부모들을 위의 사례들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생활모습을 공개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4)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부모들은 자녀의 현재 발달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가 발달해가는 과정도 알기를 원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유아교육기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유아가 변화되어가는 과정도 살펴보고 가정에서 있었던 경험도 나누며 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사실 유치원에서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엄마는 그 과정이 참 궁금해요. 아이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아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알 수 있게 주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이하정. 2015. 1. 21.)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어야 한다면 바로바로 알아야 도와주죠. 한참 뒤에 알면 도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발달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선생님과 일정한 시기를 두고 아이에 대해 소통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김은혜. 2014. 12. 16.)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집에서의 일까지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미안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전화 자주 주시기는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중략) 전화가 언제 올지 알면 적어놓고 물어봐서 도움을 얻고 싶네요.

(오은미. 2014. 11. 2.)

위의 사례들처럼 부모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현재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고 유아교육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적기에 유아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부모들은 특히 유아의 발달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일정한 기간을 둔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정기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부모들은 양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전화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추가로 유아의 발달상태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지로도 정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전화로 제일 좋죠. 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 제점도 있을텐데 전화로 해야 서로 오해가 덜해요.

(한영주. 2014. 10. 25.)

전화로 하면 선생님 의견도 듣지만 내 궁금한 점이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서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기록지로 오는 건 너무 일방 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걸 알 수 있게 전화로 소통하는 게 가장 좋고,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발달상태를 알 수 있게 기록지로도 왔으면 좋겠어요.

(주은희. 2015. 1. 24.)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간에 대해서 부모들은 한 달의 한 번이 적절하다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달에 한번 정도요? 소통이라는 게 주거나 받거나 해야 하는데 너 무 길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나은. 2014. 11. 17.)

한 달에 한 번이 가장 좋고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주는 선생님도 힘들고, 그 사이 다른 소통을 아예 안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정해진 정기적 인 소통은 그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하정. 2014. 12. 16.)

이 같은 정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과

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경험에서도 언급되었던 이야기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이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둔 소통을 요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유아의 발달 과정을 알고자 하고, 유아에게 시기상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교사의 정기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들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모들이 느낀 어려움을 살펴보고 유아교사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들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긍정적인 경험을 살펴 본 결과, 관찰 사례와 지도 방안을 통한 교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부모보다 앞선 교사의 선행(先行) 소통,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교사의 소통,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소통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들은 관찰 사례와 지도 방안을 통한 교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 같은 소통은 부모가 유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사가 유아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 부모로 하여금 기관과 교사에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는 교사가 유아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부모에게 전달할 때 부모들이 더욱 공감하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안지혜, 2012)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교사의 답변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을 보고한 김보영(2013)의 연구결과와도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 교사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유아에 대한 관찰 내용에는 유아의 발달 상태 및 문제 상황과 더불어 식생활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도 포함되며, 부

모와 교사가 현재 소통 중인 내용을 증명해 줄 유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다.

교사가 제공한 유아 지도 방안은 부모가 가정에서 연계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부모들이 이를 긍정적 소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모들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다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관찰은 필수적이고(김안나, 2010), 관찰은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하다(강창숙, 2010).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유아의 행동과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 유아를 이해하려는 관찰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찰을 토대로 하는 적절한 지도방법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부모보다 앞 선 교사의 선행 소통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교사의 선행 소통은 자녀의 문제 상황에 대한 부모의 근심을 안정시키고 부모가 교사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일을 통제하였다. 나아가 교사가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함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고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과 친밀감도 형성되었다. 이는 의사소통 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내부적 요인으로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게 나타난 손환희(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통의 내부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에 무관심하면 수신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듯이(구수진, 2001)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가 부모보다 빠른 소통을 취하여 부모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들은 상황에 대한 신중한 교사의 소통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

다. 유아에 대한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교사는 유아의 사소한 부분에도 대해서도 부모와 상세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중한 교사의 소통은 유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부모의 흥분된 감정을 완화시키고, 교사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가정과의 연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유아의 상황에 신중하게 소통하는 교사는 유아를 진심으로 대하고 걱정해 주는 교사와도 연관되며 이는 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할 때 교사가 유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껴 부모가 교사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송유진, 이대균(2012)의 논의와도 상통한다.

부모와 교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고, 교사가 판단하는 '사소함'의 기준도 역시 주관적이다. 이에 유아의 상황에 대한 중요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모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부모들은 부모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소통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공감하는 의사소통의 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형성과 자기 공개 축진을 나타나게 한다(정상섭, 2008).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교사의 소통은 부모가 감정이 흥분 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되게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안정된 감정은 부모가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신속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교사의 파트너십에 있어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 정계숙, 윤갑정, 손환희(2015)의 연구결과와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최지민(2015)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경험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교사의 의사소통은 부모

가 처해있는 상황과 양육환경에 대한 공감과 배려도 포함하며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를 교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같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능력은 의사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도우므로 교사가 타인에 대한 ‘공감하기’ 의사소통 기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훈련과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노상경(2012)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부모의 정보에 대한 교사의 낮은 수용과 반응 없음으로 교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였고, 손환희(2009)와 안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교사 역시 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반대로 교사의 적극적으로 반응과 노력으로 부모들은 긍정적인 소통의 경험을 하였다. 부모들은 소통한 내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떠나서 교사가 부모와의 소통에 노력해주는 자체만으로 호의적인 감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더라도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하며 노력해주는 교사의 태도에 부모들은 긍정적인 소통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교사의 태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사와 부모는 서로의 소통에 반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 번째, 부모들은 유아의 생활 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한 교사의 정기적인 소통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의 생활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부모에게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유아를 상태를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는 학교 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 및 학부모 민원의 증가가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을 저해한다는 노상경(2012)의 연구 결과 따라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유아의 생활모습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부모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진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 또는 참관을 더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소통은 부모와 교사간의 소통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참여 활동이 부모가 교사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돕는다고 나타낸 조미영(2008)의 연구와 맞물린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도 부모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 경험이 되었다. 일정한 기간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부모가 유아의 상황과 소식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더 효과적인 가정연계로 이끌며, 소통을 위한 준비시간을 통해 계획적인 소통을 유도하여 유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의 생활모습 공개와 상담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아의 상황을 나눔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모습 공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과 부모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위한 노력이 교사에게 요구되어 진다.

부모와 유아교사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어려움을 살펴 본 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사의 노력 부재, 상황에 맞지 않는 교사의 소통 방법, 교사와 부모의 관점과 견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갈등,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 부족, 존중되지 못하는 부모의 의견, 부모의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사의 노력 부재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만족도를 연구한 이진애(2012)의 연구에서 교사의 의사소통 태도에 대해서 부모가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들은 부모가 소통을 요구하지 전까지 먼저 소통을 하지 않는 교사와 부모의 선 소통에도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사, 부모가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 한 후에야 반응을 보이는 교사를 노력이 부재한 교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들은 부모에게 먼저 소통을 취하고 부모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사를 의사소통에 노력하는 교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교사의 의사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교사의 단답형으로 이루어진 소통과 낮은 반응은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교사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이면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낀다는 홍정연(2011)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부모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더욱 질 높은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교사의 소통 방법에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상황이 요구되는 문제를 글로 표현하는 교사의 소통은 유아에 대한 교사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어서 교사의 소통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다는 오해를 야기시킨다. 이는 대면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부모와 교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주 상담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와 개인 알림장을 선호한다는 이지훈(2013)의 연구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부모들은 상황에 부적합한 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부모들은 ‘교사가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나 ‘바빠서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화는 그 중심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며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성 수립이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안지혜, 2012). 따라서 교사들은 구체적인 상황이 요구되는 문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진심이 느껴지도록 다가가서 함께 감정을 나누며 부모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단한 전달사항을 문자로 소통할 시에 간단하게 적기 위해 문장 구성을 줄인 생략문자의 소통은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문자로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간단하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 구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읽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문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들은 교사와 부모의 관점과 견해 차이로 인하여 소통의 부재와 갈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상황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부모와 교사의 관점의 차는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유아의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미자, 2006; 이진애, 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대하여 이진애(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나눌 때 더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해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행사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익숙한 일이고 유아의 발달상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기며 세심하게 소통을 이루지 않아 이에 소통의 편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의 여러 상황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 보고 더 세심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자와 교육자라는 부모와 교사의 다른 역할로 인한 견해의 차는 부모와 교사 소통을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어 소통의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부모와 교사는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서로의 진솔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 부족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부모는 유아의 행동 특성과 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말하거나 일반적인 소통만 이어나가는 교사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교사의 의사소통은 부모에게 교사의 정보와 조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신뢰성이 실추되고 이에 소통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는 교사 입장에서 부모가 그만그만한 이야기만을 하는 교사를 그리 전문가로서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진다는 안지혜(2012)의 연구 결과와 일부 맞물린다. 유아교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에 부모의 신뢰를 얻고 의사소통의 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어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한 가정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해 더욱 폭넓은 학식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부모들은 존중되지 못하는 부모의 의견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기관 운영에 대한 소통에서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의견의 수렴 여부를 떠나 반응 자체가 없는 것, 부모의 의견에 대해 반응을 하여도 부모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이는 기관에 대한 의사소통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부모와 교사의 협력관계를 위한 소통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의견은 부모 의견 수렴이 까다로워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에 소통과정에서 의견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부모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고 적절한 반응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부모들은 부모 스스로의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

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부모의 과잉해석은 유아의 상황을 부모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부모 자신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교사의 소통에 신뢰성을 부모 스스로가 실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의 저해요인이 상호간의 과잉해석이라는 노상경(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 해석은 교사와의 소통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소통 할 때 부모가 소통내용에 대해 어떤 해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나타낸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이에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배지희, 이윤영, 조연경(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교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하고 부모의 감정을 고려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의사소통 기술과 전달력 부족(고선아, 2008; 노상경, 2012; 배지희, 이윤영, 조연경, 2013)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마음을 고려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이 교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와 유아교사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 본 결과,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양방향적인 소통,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녀의 모습 공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부모들은 유아교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을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정확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 사실에 근접한 전문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송유진과 이대균(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서 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도 겪었다. 본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부모들의 언급을 통해 부모들은 유아교사의 역할을 유아를 돌보는 것이 아닌 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유아교육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교사의 전문성이 제시되고 있는 선행연구들(이금란, 2000; 조형숙, 김정숙, 2001)과 부모는 교사에 대해 전문성이 느껴지는 행동을 보았을 경우에 신뢰를 통한 관계성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말한 권미량과 하연희(2014)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에 교사는 스스로 유아교육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유아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교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파악한 후 실행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대중들에게 그 전문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여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교사의 사기를 높여 교사가 전문가로서 더욱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상호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소통이 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정윤귀(2006) 연구에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쌍방향적인 소통보다 일방적인 소통을 더 만족했다는 취업모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과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과 학습을 위해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장지원(2005)의 연구와 NAEYC(1998)에서 가족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교사는 부모와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학

습과 발달에 대한 욕구를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이지훈(2013)의 연구가 부모의 의견을 뒷받침 해 준다.

교사와 부모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Epstein, 2001; Swap, 1993; 배지희, 2008, 재인용). 교사는 부모도 함께 교육하는 교육의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부모의 의견과 평가가 반영되는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 부모들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소그룹 학부모 모임 기회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끄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모습을 다양한 경로로 공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모습을 직접 보았을 때 유아교육기관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유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은 자녀 모습을 공개하는 방법을 참관과 공개수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공개를 원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유아의 단편적인 활동모습 뿐만 아니라 유아의 성향과 생활모습 등 전반적인 현상을 알기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환경과 수업 분위기를 실제로 관찰하여 기관에 대한 안심을 얻기 위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유아의 기관 생활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들의 모습도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교사에게 부담감을 주며, 기관 생활모습 공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모나 원장의 평가에 교사들은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조미영, 2008). 따라서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서로 고려하여 직접적 공개와 간접적 공개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참관과 공개수업 등 직접적인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한번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참관과 참여수업을 한 달에 한번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모참여 현황(조미영, 2008)과 일치하고 한다. 교사들은 부모에게 자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유아의 양육 책임자로서 자녀의 모습을 알고 교사와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들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유아교육기관의 정기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현재 발달 상황뿐 아니라 자녀가 발달해 가는 과정을 알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교사의 지원도 받고자 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연락'과 '정기적인 부모 면담'에 참여하는 정도보다 높아졌다는 문영보와 최복기(2009)의 연구 결과에 따라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유아를 교육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협력과 부모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방법으로 양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전화상담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이 한 달에 1-2번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윤귀(2006)의 연구의 의사소통 현황과 일치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소통 기간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부모와 유아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경험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교사의 관찰 사례와 지도 방안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과 교사의 선행 소통으로 유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사가 유아의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부모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여 유아에 대한 진심을 느껴지도록 소통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또한 교사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올바른 가정연계로 이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사에게 다양한 멘토링과 교사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생활모습 공개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유아교육기관 측의 운영방침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부모가 원활하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이루어나는데 소통을 위한 환경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와 유아교사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는 교사에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교사와 나누는 소통의 내용에도 신뢰를 형성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교사와 부적합한 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교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로 인하여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가정과의 연계에 기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에게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소통에 대해 자신감을 실어주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교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의견에 차이가 나타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소통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어 의미있는 소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협력관계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과잉해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해 회피를 보이는 부모 스스로의 원인도 나타났으며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지 않는 소통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교사는 소통을 포기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소통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부모와 교사가 소통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부모는 교사의 유아교육의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신뢰성이 갖추어진 소통을 원하고 있었으며 소통이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 교사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정 연계 활동이 되기 위하여 교사는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양방향적인 소통이 되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학부모 모임이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모습을 직접관찰하기를 원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유아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그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고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의 연구 참여자들이 고루 분포 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본 연구와는 다른 특정 지역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주 참여자가 어머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를 어머니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변화로 인해 아버지는 과거처럼 물질적인 제공만을 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공동 책임자의 역할을 가지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거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을 살펴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부모와 교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취업모, 초임교사 또는 사전, 사후 등 대상과 상황을 세분화 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개발되어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문희, 신현옥, 정옥환, 정정옥 (2004).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강창숙 (2010). 좋은 수업을 위한 예비 지리교사의 수업 관찰과 반성. 한국 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59-75.
- 고선아 (2008).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학부모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인숙 (2013). 만 2세 유아의 언어발달이 또래유능성 및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수진 (2001). 유치원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미량, 하연희 (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281-302.
- 김경영 (2007). E-mail과 SMS를 활용한 교사-학부모 의사소통 개선.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영 (2007).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다정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애 (2011). 가정과 연계한 유아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10). 어머니-유아교사 간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영 (2013).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교사의 어려움.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현황 및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재 (1987).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나 (2012). 유아 관찰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관찰자로서 경험의 의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01-229.
- 김영옥 (1987). 부모교육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연구. 유아 교육연구 제 7집. 서울: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편.
-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 (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5), 71-89.
- 김진 (2014). 가정어린이집의 부모 상담 실태와 교사와 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아 (201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 현황과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동 (1993). 유치원 생활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 어머니와 교사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 (2011). 가정과 연계한 동화 극화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 노상경 (2012). 유아교사-어머니 간 의사소통 저해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Vol.73, 211-232.
- 모용희 (2015).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도덕적 판단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경미 (2003).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웹

- 기반 시스템 제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보, 최복기 (2009). 가족-보육시설 연계활동에 대한 부모참여 실태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9(2), 35-52.
- 박순이, 심성경, 박주희(2005). 부모와 교사의 유아발달 기대수준. 교육과학 연구, 36(2), 211-229.
- 박신경 (2007). 기독교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정과의 연계의 중요성. 신학과 목회, 28, 275-303.
- 박현정 (1992). 가정환경과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숙 (2003). 유치원 교사 및 부모의 유아놀이 인식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35, 221-240.
- 박희숙 (2009). 가정 연계 모델 중심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1-23.
- 방은경 (2011). 가정연계 유아 기초체력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울미, 조유진 (2014). 유아교사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연구: 의사소통 어려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1), 323-340.
- 배인자, 위수경 (2004). 유치원에서 어머니-교사 의사소통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7, 25-47.
- 배지은 (2013). 유치원에서의 정기적인 전화상담 실시현황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지희 (2008).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부모참여 실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교육인류학연구, 11(1), 147-176.
- 배지희, 이윤영, 조연경 (2013).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부모면담에 대한

-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경험. 유아교육연구, 33(5), 89-114.
- 서재경 (2014). 학부모 및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보육교사-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려움과 보육교사 효능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영화, 김근희, 김민화 (2014).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의 내용과 편집 구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2), 69-91.
- 손지연 (2007). 학교장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사의 직무만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환희 (2009).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민영 (2015).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개인면담 현황과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유진, 이대균 (2012).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413-439.
- 심성경, 조순옥, 이정숙, 이춘자, 이선경, 이효숙 (2004). 개정유아교육개론. 서울: 창지사
- 안선희 (2010). 어머니의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 의사소통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8(2).
- 안은주 (2001).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만3세 유아의 발생적 읽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지혜 (2012). 교사-부모 의사소통에서 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2), 20-46.
- 염지숙, 홍춘희 (2006). 부모와의 관계형성에서 초임유아교사가 겪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3(2), 407-434.
- 위수경 (1999).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환경에 따른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이

-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위수정 (2000). 유치원에서의 어머니 : 교사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 (1993).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현정, 안지혜 (2010).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아동보육연구, 6(2), 39-54.
- 윤영숙 (2001). 유치원 연락수첩에 나타난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 교환 내용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형윤 (1999). 가정과의 연계적 전래동요 활동이 유아의 음악 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 경 (2001).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수행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화 (1992). 부모참여에 관한 유아교육전공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란 (2000).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자 (2006). 교사-어머니 의사소통과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자, 문혁준 (2008). 교사-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9(1), 1-14.
- 이영애 (2011).어린이집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가정- 교사 간 의사소통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연, 김경희 (1992).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이주경 (1996). 유치원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

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훈 (2013). 유아교사와 부모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의사소통.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애 (2012). 어머니 - 교사의 의사소통 빈도와 의사소통 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정 (2014). 교사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려움과 직무만족도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화나 (2008). 교사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만 3세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장지원 (2005).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참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필남 (2010). 공립 유치원 교사가 지각한 학교장의 의사소통 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의 비교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선미 (2003). 학교·가정 연계 행동수정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율학습행동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정선 (2013).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계숙 (2001). 유아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3), 143-164.

정계숙, 윤갑정, 손환희 (2015). 부모-교사 파트너십에 대한 유아교사의 주관적 태도 분석: Q-방법론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9(2), 243-272

- 정미애 (2011). 가정과 연계한 유아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배재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상섭 (2008). 화법교육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개념과 내용의 수용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357-375.
- 정윤귀 (2006).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교사 간 의사소통 내용과 방법의 현황, 만족도 및 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미영 (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 활동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형숙 (2000). 유아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 실태. 한국교육문제연구, 15, 235-249.
- 조형숙, 김정숙 (2001). 유치원 교사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407-428.
- 조희수 (2003). 유아기 읽기, 쓰기 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배근 (1989).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세영사.
- 최미숙, 박영미(2004).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9(2), 137-160.
- 최지민 (2015). 초등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 부모 간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경용 (2011). 만 2세 영아의 또래간 갈등에서 교사의 개입 전략과 교사의 개입 전략에 따른 영아의 상호작용 전략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291-312.
- 하유나 (2014).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 현황

- 과 인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성희, 조은래(2013). 만 2세 영아반의 교실문화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171-196.
- 홍정연 (2011). 보육시설에서 취업부모와 보육교사가 상호 지각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지명 (2015). 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유아교사의 노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uch, J. P. (1997). *Dialogue and communication between School and Home*.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ED 416-918)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Wiley.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zvini, A., & Readdick, C. (1994). Parent- caregiver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care setting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207-220.
- Dauber, S. L., & Epstein, J. L. (1993). Parent' attitudes and Practices of involvement in inner-c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N. F. Chavkin (Eds.). *Families and schools in a pluralistic society* A (pp. 53-71).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ecker, C. A., & Decker, J. R. (2001).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Prentice Hall. Inc.,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CO: Westview Press.

- Galindo, C., & Sheldon, S. B. (2012). School and home connections and children's kindergarten achievement gain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invol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 90-103.
- Gelfer, J. (1991). Parent-caregiver partnership enhancing communication. *Childhood Education, 67*, 164-168.
- Gestwicki, C. (2000). *Hom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 A Guide to Working with Families*. Central Piedmont Community College: Charlotte, North Carolina.
- Gordon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Peter H. Wyden.
- Greenwood, G. E., & Hickman, C. W. (1991). Research and practice in parent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1*(3), 279-288.
- Hilderbrand, V. (1981).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3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Hoover-Dempsey, K. V., Bassler, O. C., & Burow, R. (1995). Parent involvement in elementary children's homework: Parameters or reported strategy and practice. *Elementary School Journal, 95*, 435-450.
- Jeffrey I. Gelfer & Peggy G. Perkins(1987).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 A process for Parent / Teacher Conferences"
Childhood Education, 64, 19-22.
- Kontos, S. (1984). Congruence of parent and early childhood staff perceptions of parenting. *Parenting Studies, 1*, 5-10.

- Leeper, S. H. (1984). Involving parents as partners. *Good schools for young children (5th de.)*, p.421-440. New York : Macmillan.
- Minish, P. A. (1986). *Developing an instrument to assess parent-caregiver communication during morning and afternoon transition times in day care centers*.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ED 313140)
- Spodek, B., Sarddcho, O. N., & David, M. D. (1991). 유아교육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역). 서울: 양서원. (원전은 1987에 출판)
- Sutherland, I. R. (1991). Parent-teacher involvement benefits everyon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73*, 121-131.
- Winkelstein, E. (1981). Day care/family inter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Child Care Quarterly, 10*(4), 334-340.

ABSTRACT

Parents' Experience about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Early Childhood Teacher

Jo, Hyun j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arents' positive experience and difficulty and demand for smooth communication that parent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arent-early childhood teacher communication in depth through the interviews with study participants. Study problems for such objective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ositive experiences that parents encounter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what are the difficulties that parent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Third, what are parents' demands for an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October 2014 to May 2015. Study participants were 12 parents, who are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that are sending thei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5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2 or more interviews were conducted per study participant. Collected data was grouped based on the transcription and categorized, and study participants were verified and advice from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 education experts was obtained to acquire accuracy and credibility in data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obtained from such processe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were perceiving teacher's communication of providing detailed explanation based on observed cases and future instructional plan, a leading communication of initiating communication with parents before parents approach teachers, and communication in prudent attitude positively. Such communication helped parents understand their children specifically and induced parents'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the connection at home. Also, teacher's communication based on empathy and consideration for parents and teacher's active response and effort toward communication lead children to feel teacher's sincerity, helping faithful relationship form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n addition, teacher's periodic communication that occur by opening child's lifestyle and consultation allows parents and teachers to see the child on the same perspective and contributes in timely educations.

Second, in terms of the difficulties that parents face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parents experienced difficulties when teachers are not making active efforts for communication or when they use inappropriate communication method, which leads to difficulty in trust form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Also, absence or conflict in communication arises due to difference in their perspectives and opinions, and teacher's credibility in communication is lost due to lack of teacher's professional knowledge, interfering with smooth communication. When parents' opinions are not respected, the communication remains one-sided and parents give up communicating, which pose difficulty in forming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communication. Lastly, avoidance due to parents' over-interpretation and negative evaluation also lead to poor communication.

Third, in terms of parents' demands for effective parent-teacher communication, parents were looking for communication which teacher's expert knowledge can be shared and a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Parents also wanted to be able to observe their children's life in an open environment and wanted a periodic communication; they expected detailed information on child'd development and curriculum.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논문을 준비 중인 조현진입니다.

먼저,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협력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개인적 경험과 사례를 알아보고자 개별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담 시간은 50분 ~ 6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개별면담은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며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녹음을 할 것입니다.

녹음한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어머님의 개인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표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면담 과정 중에 힘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면담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어머님들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 솔직한 이야기들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목적과 절차가 이해되고 이에 동의하신다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201 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서명: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조현진 드림

(지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배지희)